

## “교회학교가 바로 서면 교회는 폭발한다”

### 일로크릭교회의 아시아담당 채수권 목사

#### 교회학교 미국연수보고

위 문구는 일로크릭교회의 아시아 담당 채수권 목사의 말이다. 교회가 어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온 정성을 쏟을 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나타낸 것이다. 교회학교교사는 10일간의 미국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체득했다. 이번 연수가 가져다준 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와 위기의식만의 강조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특별히 교회학교와 관련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은 어디이며, 어디를 향해 정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도전앞에 놓여졌다. 교회학교로 인해 부흥하는 교회, 교회학교로 인해 더욱 충실해져 가는 교회, 어린이들로 인해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로 인해 더욱 건강해져가는 교회...이번 연수를 통해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30기 무지개호스피스교육을 마치고

#### “호스피스, 나이 제한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지난 5월 22일(토) 호스피스부 월례회가 있었다. 예배 후에 각 병원초소별로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 매주 나가야 하는 부담감에서 환자와 가족의 변화를 보고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이야기들, 우리가 드린 작은 시간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등을 돌아가면서 나누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영적 충만감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5월 27일(목)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30기 무지개 호스피스교육 수료식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길정애, 김정애, 김인숙, 조현갑, 유은미, 이해경, 윤덕영목사가 수료하였고, 무지개호스피스 실장으로 교육진행을 맡아주신 김양자권사, 이승숙 문춘자집사가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해주었다. (4면에 계속)

#### 레인보우, 달란트시장 했어요!

5월 23일 (주일) 통합아동부 예배는 아이들의 힘찬 찬양 소리로 시작 되었다. 설교 시간에는 아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보았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나음을 입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었다. 영상물을 본 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순진함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시장을 열었다. 서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개수를 세어보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순서대로 갖고 싶은 물건을 하나씩 골라 가졌다. 앞으로 8월에 달란트 시장이 한 번 더 열릴 계획이다.

#### 중등부 학부모간담회 통해 부모, 교사, 학생 서로를 알아

지난주일 중등부는 주일 예배직후 소예배실에서 상반기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50여명의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중등부 교사와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등부 상반기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행사 결과들을 듣고 7월 25~27일(2박 3일)에 있을 여름 수련회에 관한 홍보 프리젠테이션을 보았다. 사실 자녀를 향해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기도하는 두 사람은 부모와 교사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자녀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 간담회 시간을 통해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은 귀한 시도이다. 전체 공지사항 이후 각 반별로 담당 교사와 학부모가 일대일로 만나 서로 자녀와 학생을 향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반기에는 학생과 부모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중등부 행사에 부모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욱더 많이 마련할 계획이다.

#### 8월의 캄보디아 선교위해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선교단 (단장: 권오승 장로)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해외 선교봉사 활동을 가지려한다. (4면에 계속)

#### 썩트네의 "첫 나눔의 실천행사"



썩트네(통합유아부)가 처음으로 삶의 나눔을 실천했다.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벽계동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이 만드는 “위켄” 쿠키공장에서 나눔의 실천행사를 가졌다. 처음 하는 일이라 먼저 단순작업부터 하게 되었는데 쿠키의 포장과 조경공사로 투입되어

봉사했다. 교사들 간의 대화와 나눔도 없고 일회성에 그치는 교회의 생활에서 모처럼 시간들을 내서 함께 뭉치는 시간을 가졌다. 수고한 후의 식사와 쿠키 시식 시간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값진 시간과 맛을 내었다. 교사들의 단합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어 앞으로 매달 1회 정기적인 봉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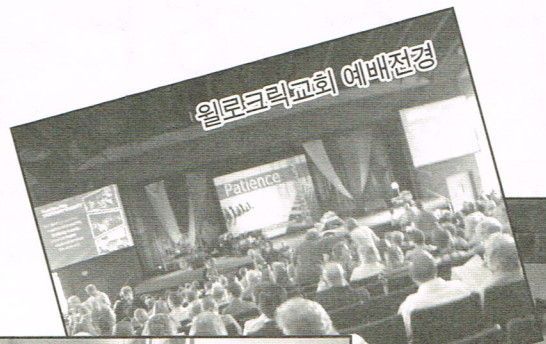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3가정 참여하고 있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지난 5월 22일(토)부터 1박2일씩 5주간의 훈련프로그램이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교회에서는 3가정이 이곳에 참여하고 있다. 최대 30가정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며, 도우미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며, 자신들도 회비를 내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는 철저히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처음에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틀린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한 다툼을 직시하게 하며, 부부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이한 점은 지원자들을 섬기는 운영팀의 대부분이 이전에 자신의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관계의 파괴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을 향해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평소 고백해 보지 못한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말들이 특별한 의식속에서 진행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가정들도 그 속에 참여하면서 함께 치유를 경험해 가는 학교이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 7일 금요일

강웅순(유치부), 구분영(유아부), 김현령(교육위원회), 박지원(초등부), 성백술(당회원대표), 윤명희(통합아동부), 윤봉섭(소년부), 윤현숙(유치부), 이상아(고등부), 최재경(통합유아부, 교육지원부)으로 구성된 연수단 전원은 7일 오전 7시 인천 국제공항에 모였다. 체크인, 일정을 확인, 자료집 배부 등을 마치고 모든 연수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비행기는 동경의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다. 날씨는 서울의 늦여름과 같은 습도 높고 더운 날씨였다.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한 후 시카고 연합 한인장로교회(황형택목사)의 금요기도회에 참석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월로크릭교회 예배전경



저녁 기도회



자체 세미나를 마치고

## 8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자료집에 준비한 잠언 묵상을 함께 했다. 잠언묵상은 연수 일정 내내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침식사를 한 후 다시 시카고한인 장로교회에 방문해서 담임목사와의 만남의 시간과 자체 세미나를 가졌다. 황형택목사는 시카고한인교회의 역사와 발전과정과 주일학교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자체세미나를 통해 월로크릭교회 담임목사인 빌 하이빌스 목사의 강의를 자료로 복음전도의 사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였다. 시카고 연합 한인 장로교회가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했다.

## 9일 주일

경건의 시간을 마친 후 시카고 월로크릭 교회를 방문했다. 9시 30분의 구도자 예배를 함께 드렸다. 마침 그날은 어머니의 날(Mother's Day)여서 설교의 주제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연관지어지는 인내에 관한 것이었다. 말씀을 돕기 위한 짧은 단막극과 인터뷰 등이 짜임새 있게 설교 중에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폭소와 동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인내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를 선포하였다. 11시 15분 25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예배에 참석했다. 그 모양과 틀은 콘서트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40여분 간 진행된 설교말씀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복음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주일에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

어와나 시카고 본부



## 10일 월요일

오전의 휴식 시간을 갖은 후 오후에 AWANA 시카고 본부를 방문했다. AWANA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디모데 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영어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이다. 교육위원회는 3월에 갖은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세미나에서 6시간에 걸쳐 어와나 코리야의 이종국목사를 통해 강의를 들은바있고 가을부터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도입할 예정에 있기도 하다. 일행은 그곳에서 해외선교를 담당하는 분의 안내를 받아 시설을 둘러보고 어와나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었다. 일행은 어와나가 제공하는 이틀간의 무료숙박시설과 아침식사를 제공받았다. 이곳에 있는 동안 숙소와 함께 있는 거실에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다.



시카고의 도심 야경

## 11일 화요일

쉬지 않고 달려온 일정을 잠시 멈추고 시카고를 둘러보는 관광의 시간을 가졌다. 미시간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마을과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고 다음의 일정에 대한 준비를 새롭게 했다. 오후에는 어린이 박물관에 들려 어린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비중이 있는 지원의 결과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기구들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행들을 주님의교회 교회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부심하였다.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을 탈 계획이었으나 날씨가 흐려 다음날로 미루었다.

## 12일 수요일

오후에 다시 월로크릭 교회에 방문했다. 월로크릭에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채수권목사를 만나 월로크릭교회에 대한 제반 설명을 들었다. 특히 목회 철학인 잃어버린 자(lost people)에 대한 사랑과 관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채수권목사와 함께 월로크릭교회의 제반 시설들을 돌아보며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교회 건물의 60%를 교회학교를 위해 할애할 만큼 교회학교에 대한 열정과 배려가 컸으며 그러한 결과로, 작년 한 해 동안 순전히 자녀들로 인해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장년의 수가 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학교 운영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도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미팅 후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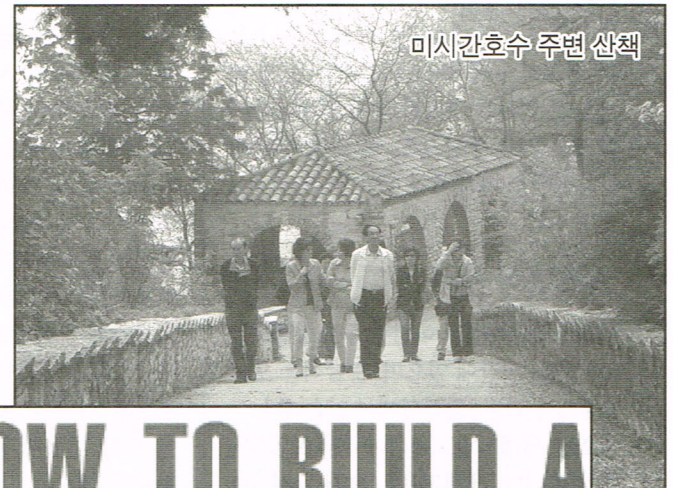
## 13 - 15일 목-토요일

13일

WCA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통해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하였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개인시간을 가졌다.

14-15일

"How to Build a Contagious Church"라는 주제로 월로크릭협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아침 9시에 등록을 마치고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빌하이빌스 목사를 비롯하여 미국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강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방법론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서 돌아와서는 자체 세미나를 통해 강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교회학교의 적용점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16일 저녁은 연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감사함과 아쉬운 마음을 서로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다.



미시간호수 주변 산책

# HOW TO BUILD A CONTAGIOUS CHURCH



## 16일 주일

이른 새벽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도착 8시 50분 비행기로 서울로 출발함으로 결코 짧지 않은 교회학교교사 연수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비행기는 시카고나리타 경유 17일 저녁 7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행은 공항로비에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 미국연수 후기

##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교사되기로 다짐하며

저는 5-6학년 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는 윤봉섭입니다. 먼저 이번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되어지지 못한 교사라는 죄책감으로 늘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한 일상과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미국연수 프로그램을 소개 받았고 그것의 참여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수준비모임을 시작하고 함께 여행할 사람들을 만나자 그러한 기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지는 느낌으로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자 그러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인해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학과 세미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나름대로 새로운 교회학교의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되어져 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로서 봉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찬 끝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내 마음이 녹아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수 기간 내 내 각양각색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하며 매일 매일 행복했습니다. 팀원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친밀함 가운데 서로의 신앙에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함께 한 모든 팀원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쁨으로 전하겠습니다' 고 말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섭 집사

## 1. 주일 도로주차 안내

주차할 때 우성아파트쪽 차도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송파구청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 2. 자원봉사자 모집

주일 새벽에 식당봉사할 남자성도와(문의 강은애 권사 016-281-4390), 꿈나무공부방 피아노 교사 자원봉사자 4명(문의 한정웅 집사 010-8001-1144) 모집합니다. 한글합울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한글합울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이창현 목사 011-466-4736)

## 3. 교회내 모임 안내

- 1남선교회 월례회가 오늘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945년 이전출생자이며, 이번 모임은 부부상견례가 있습니다. (문의:신정웅집사 011-236-0661)
- 중보기도사역팀 모임이 6월 1일(화) 오전 10시 월만헌물가에서 있습니다.
- 1여선교회 월례회가 6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찬양대실(5층)에서 있습니다.
- 2여선교회 월례회가 6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영아부실(지하)에서 있습니다.
-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화천 승리부대 찬양예배를 위해 6월 6일(주)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 4. 세례예식 안내

- 세례·입교예식이 이번주 수요일성경공부(6월 2일) 시간에 있으며, 문답식은 오늘 오후 1시 30분 3집회실에서 있습니다.
- 청소년 세례·입교예식이 6월 20일(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오전 11시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 5. 교역자 부임

5월 30일부로 영아부에서 정 교육전도사가 부임했다. 서정 전도사는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목민교회 등에서 5년간 교육전도사로 유치부 사역을 했다.

## 새로 시작한 구역을 소개합니다

인터넷카페로 시작  
지금엔 야외파티까지

5교구 16구역(구역장:조영률집사)은 올해 새로 시작된 구역이다. 주로 개포동지역에 해당하며, 구역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28가정에서 현재 약 5가정이 모이고 있는 중이다. 구역이 처음 모이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자녀들이 너무 어려 구역공부에 데리고 나가자니 다른 구역식구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고 집에 혼자 두고 오기도 어려운 가정이 많았던 것이다.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구역모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2-3주 후에 가정에서 구역모임을 갖자는 의견이 오고가게 되었다. 1차 모임으로 남한산성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의 기도제목도 나누고 구역모임준비를 구체화하였다.

구역모임에 아이들도 꼭 데리고 오도록 하였고, 구역공과 진행 중에 옆방에서 저희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이제는 많이 친숙해진 상태다. 그동안 구역모임과 더불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음악회도 같이 가고, 어린이날에는 구역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기도 하였다. 한편, 토요일을 이용하여 지산 스키장 부근의 야외장소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야외에서 함께 한 이시간은 구역식구들과 자녀들 모두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되어, 다음에 한번 더 준비하려고 계획중이라 한다.

이제는 금요일이면 아이들이 먼저 구역모임 가자고 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특히 이번 무지개 축제 때에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23명이 참석하여 함께 응원과 운동에 참여하며 구역식구들이 한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16구역의 건강한 부흥을 기대해 본다.

(1면에 이어서)

## “호스피스, 나이 제한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죽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무지개호스피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워져 나이 제한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자원봉사자로 일할 일꾼들을 배출하는 곳이다. 요즘 사회가 나이제한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말리는 사람없이 신나게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는 대상자(환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배웠다고 한다. 30기 교육을 수료 하면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사랑이 정말 묘약이구나”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한다.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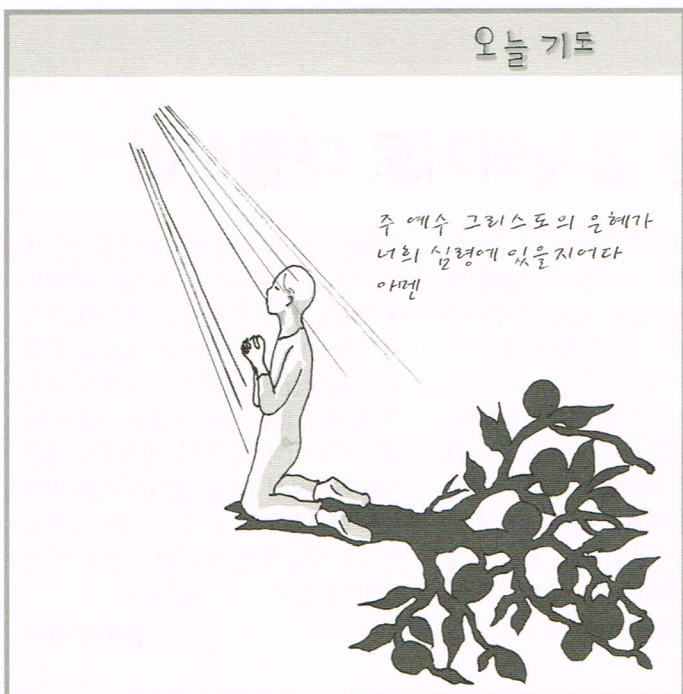
## 8월의 캄보디아 선교위해 기도해주세요

문화(어린이 교육, 미용, 이발 등), 의료, 지원 분야에서 몇 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관심 있는 성도께서는 해외선교위원회 담당 이호 목사(011-496-233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기의료선교가 봉사의 의미도 뿐만 아니라, 현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단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은 1 의료팀의 구성, 2 가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 3 현지에서 문화사역팀과 의료 사역팀의 사역, 4 모든 분들의 건강, 5 현지 캄보디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하다.

## 제1A,1B여선교회 월례회

## 연합 1여선교회 설레이는 봄나들이

5월 4일 화요일 갑종 풀어진 비 때문에 과천대공원 숲은 깨끗하고 선명했다. 초록의 짙은 내음은 제1여선교회원의 가슴에 요한슈트라우스의 ‘봄의소리’ 윌츠를 들려주었고 깊은 호흡으로 숲속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들의 사랑은 꽃잎 피리가 되어 입술을 통해 흘날렸고 몽게 구름처럼 하늘로 하늘로 피어올라 “들국화”에 나오는 뽕소년 합창단의 어여쁜 모습보다 더 아름다웠다. 우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젊었던 시간 속에 머물러도 보았다. 더러운 영육의 찌꺼기들을 토해내 버리고 맑은 용달샘을 떠마시며 천사들이 되어갔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안에만 있으면 꽃도 되고 바람도 되고 용달샘도 된다. 제1A, 제1B가 함께하여 제1여선교회로 탈바꿈하고 처음 나온 나들이다. 긴 숲을 거슬러 올라 호수에 다달았다. 고요한 호수엔 오리새끼 짝지어 사랑놀음하고 바람은 호수의 내음으로 우리의 코끝을 간질이고 새소리도 간간히 들려온다. 또 다시 오고 싶다. 아침에 모인 원두막 앞엔 스낵코너가 있다. 시원한 오뎅 국물 생각이 났다. 꼬치오뎅, 노랑게 석쇠에 구운 흰 떡가래 나누는데 박경옥 권사가 쪼르륵 나가더니 짹짹한 고동 한 봉지 들고 오셔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되었다. 작년도 제1회장님 이남숙 권사와 출사위장구 잘하시는 숨은 인재 배숙자 권사가 식사만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 와 주어 감사했다. 아침에 나눠드린 3가지 화필 중 “지금 필요한 사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 아니라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자이다”란 말의 힘이 증명되었다. 진초록의 숲은 산소를 뿜어내어 우리들의 생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시간 이후의 생 안에서 피곤한 영혼과 몸을 쉬라고, 쉬라고 숲은 말없이 우리를 섬겨주었다. 제1여선교회 전원은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 것이기에 귀하고 자랑스럽다. 멋스러운 임성한 협동 권사가 하얀 봉투에 금일봉을 새 색씨같이 수줍게 두 손으로 내놓으시며 보태 쓰라했다. 다음 달은 진생도 교회로 봉사의 길을 떠난다. 금일봉과 찬송과 시 낭독을 준비한다.



### 1. 정기 예배 (주일)

| 예배    | 시간                   | 장소      |
|-------|----------------------|---------|
| 1부 예배 |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 2층 대예배실 |
| 2부 예배 |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2층 대예배실 |
| 3부 예배 |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 2층 대예배실 |
| 4부 예배 |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 2층 대예배실 |

### 2. 정기 예배 (주중)

| 예배     | 시간                 | 장소         |
|--------|--------------------|------------|
|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 6시     | 1층 소예배실    |
| 수요성경공부 |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 지하1층 중예배실  |
| 목요모임   |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지하1층 중예배실  |
| 구역모임   |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 지정된 구역원 가정 |

###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 부서          | 시간          | 장소          | 대상              |
|-------------|-------------|-------------|-----------------|
| 영아부         | 11:30-12:30 | 영아부실(지하 1층) | 생후~24개월         |
| 유아부         | 11:30-12:30 | 유아부실(1층)    | 25개월~48개월(4~5세) |
| 썩트네(통합유아부)  | 09:30-10:30 | 유아부실(1층)    | 학령기전(7세이하)      |
| 유치부         | 11:30-12:30 | 유치부실(지하 1층) | 49개월~학령기전(6~7세) |
| 유년부         | 11:30-12:30 | 유년부실(1층)    | 초등 1~2학년        |
| 초등부         | 11:30-12:30 | 초등부실(3층)    | 초등 3~4학년        |
| 소년부         | 11:30-12:30 | 소년부실(3층)    | 초등 5~6학년        |
| 레인보우(통합아동부) | 09:30-10:30 | 유년부실(1층)    | 초등 1~6학년        |
| 중등부         | 09:30-10:30 | 소예배실(1층)    | 중학생             |
| 고등부         | 09:30-10:30 | 중예배실(지하 1층) | 고등학생            |